

광산구, 살수차 등 폭염 대응 본격 돌입

쿨링포그 가동·온열질환 신속 대응 등 종합대책 운영



광산구는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도심 내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하남동, 온남동, 신창동, 첨단동 등 주요도로 21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살수차를 통해 도로를 식힐 예정이다.

주민수해도가 높은 횡단보도 그늘막은 지난 5월부터 158개소를 운영 중이다. 추가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21개 동과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7월 초까지는 시민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KTX 광주송정역과 쌍암근린공원에 설치한 쿨링포그는 14일부터 가동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양산 500개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배부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388개소의 냉방요금을 7월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야외 노동 현장의 폭염 피해도 적극 예방한다. 온열질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9개 병원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기 기자

서구, 금연환경조성분야 복지부 장관 표창

간접흡연 차단·금연구역 확대·예방 교육 우수사례 선정



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1차 선정된 3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한국중진개발원,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

사위원이 서면심사를 진행해 12개소를 선정했으며, 광주 5개구 지자체 중 서구가 유일하다.

서구는 65개소 민·관 협력 기반 구축, 1만여 개소 금연지도단속 강화, 클린자율시설 지정 운영 등 간접흡연 차단에 주력했으며, 공동주택·통학로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흡연예방 교육을 진행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조선주 기자

유휴시간 학교 주차장 지역주민에 개방

광주시교육청-지자체 협력 성과...공유문화 확산 기대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학교 주차장 공유 사업(나눔주차장)을 5개 구청과 협조해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나눔 주차장 사업은 유휴시간대(야간·주말) 학교 내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공유하는 사업이다. 주차장을 공유하는 학교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학교 노후시설 개선, 수목 관리, 학생 놀이터 시설 개선 등 학교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학교 현

장의 업무 부담 최소화,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 시간은 평일 19시~다음 날 7시 전후이다. 등록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각 구청은 나눔주차장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주차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도 성실한 관리를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조선주 기자

광주TP-부산TP, 지역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광주테크노파크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13일 광주에서 지역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 부산 지역 내 우수기술·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

다. 두 기관은 광주와 부산 지역 내 기술수요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보 공유, 우수공급기술 발굴에 협력하기로 한데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협력 등 우수기술기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권형만 기자

자소서 폐지에 '면접 비중' 늘었다

고려대·카이스트 등 올해 면접 반영비율 높아

“면접 변별력 강화...일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올해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성부) 대입 반영 항목이 축소되면서 면접 평가의 중요성이 수시에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류 대신 면접 평가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학사와 대입정보포털에 따르면, 고려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한국외대·동덕여대 등 대학이 올해 수시 전형 면접 비중을 지난해보다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종합 계열적 합전형 2단계 전형에서 지난해 40%

만 반영했던 면접 반영 비율을 올해는 50%로 올렸다. 1단계 서류 성적 비중을 줄인 대신 면접 비중을 10% 포인트(p) 늘린 것이다.

한국의대도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제외)에서 2단계 면접 평가 반영률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50%로 높였다. 동덕여대는 동덕창의리더전형(학생부 종합전형) 2단계에 반영되는 면접 비중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60%로 올렸다.

카이스트는 수시 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 2단계 면접 반영 비율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60%로 크게 올렸다. 면접 변별력을 강화

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입의 변화가 있다.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또 지난해와 달리 학생부에 적힌 수상경력, 독서활동,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내역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자기소개서 폐지와 학생부 미반영 항목 확대로 인해 면접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본인의 학생부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원 및 대비에 활용해야 하는 변화가 늘어난 면접 비중이라면, 대학별 면접 일정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진학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면접 일정은 10월7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12월 11일 아주대까지 약 9주에 걸쳐 촘촘하게 포진해 있다. 특히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6일) 직후인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다.

가장 일정이 몰린 기간은 11월 25~26일로, 수도권 대학만 하더라도 이들 간 13개 대학 14개 전형의 면접이 실시된다.

같은 대학의 같은 전형이라도 인문, 자연 등 계열에 따라 면접 일정이 다른 경우도 있어 잘 살펴야 한다. 올해 고교추천전형으로 400명을 선발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인문계 면접은 10월 28일, 자연계는 10월 29일 면접을 실시한다.

/뉴스시스

한국광기술원, 도시·산업 인프라 안전도 측정 '광신경망 센서' 개발

최대 10km 길이 광섬유, 신경망처럼 운영

저렴한 비용·사각지대 없이 정후 사전 예측

한국광기술원은 통신용 광케이블을 인체의 신경망처럼 이용해 도시·산업 인프라의 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광신경망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의 개별 광센서는 포인트형 센싱 방식으로 감시 가능 영역이 제한적이며 별도의 통신·전원선을 필요로 하는 한계가 있어 도시나 산업 인프라 등의 대규모 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

반면 광신경망 센서는 수km 이상의 광섬유 케이블이 포설된 모든 구간에 대해 별도의 통신·전원선 없이 온도, 진동, 변형 등 다중 물리량의 분포 측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기존 광센서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사각지대 없이 감시 대상에 위협

이 될 수 있는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한국광기술원에서 개발한 광신경망 센서는 최대 10km 길이의 광섬유를 신경망처럼 운영할 수 있어 도시나 산업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시설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개발 기술은 현재 도심설비·산업 시설 안전진단, 국방 경계감시 등의 분야에서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학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등 실증 중이다.

해당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광기술원(총괄), 중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광신경망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디지털 안전 시스템 개념도

연구진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한국광기술원은 또 ㈜노티스, ㈜우리시스템 등 관련 전문기업과 함께 기술 사업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권형만 기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공동시설 수질 안전성 강화

지정 약수터 6곳,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등 48개 항목 검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공동시설 중심사 입구, 대가사, 산장광장, 청풍습터, 산정, 용진산 등 6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 안전성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

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지칭한다. 광주시는 중심사 입구, 대가사, 산장광장, 청풍습터, 산정, 용진산 등 6곳을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연 4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7회를 추가해 연 11회를

검사할 계획이다.

분석항목은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납 등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 12개 항목 ▲페놀 등 건강상 유해영양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등 총 48개이다. 검사결과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과 공유한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 등 시설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 적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도기 기자

'다시 달리는, 택시운전사' 누적 방문객 1만6천여 명 돌파

한 달간 탑승객 600여 명...타지역 MZ세대 관심 이끌어

"택시 출발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5·18 사적지 제 11호 옛 광주직접사병원입니다. 당시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었는데요 5·18 당시 계엄군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이곳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위기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오월 정신이 빛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광주 동구가 지난 한 달간 영화 '택시운전사' 콘셉트를 모티브로 한 역사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2023년, 다시 달리는 택시운전사' 운영을 통해 1만6000여 명의 누적 방문객을 확보하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운행에 나선 '다시 달리는 택시운전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평일·주말 포함) 6백여 명이 동구 관내 5·18 사적지 16곳을 경유하며 택시 투어에 참여하는 등 1만 6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운행 한 달여 동안 이처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은 기성세대가 아닌 MZ세대들의 관심 덕분이었다. 실제 일 평균 20~50여 명의 방문객 중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방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8에 대해 잘 모르는 서울·경기·제주 등 타 지역을 비롯해 유학생까지 MZ세대 방문객들이 8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는 어렵고 딱딱한 설명 대신 35년 된 울드캐스텔라를 타고



5·18 사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체험이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과 어우러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다.

충북 충주시에서 온 권희영(28)씨는 "제 생일이 5월 18일인데 20여 년 전 그날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제대로 알고 싶어 부러 찾게 됐다"면서 "택시 운전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5·18 사적지를 둘러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교육청, 교원·자녀 분리 미이행 사립고 시설비 지원 보류

전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원이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전학 등의 권고를 미이행 할 경우 시설사업비 지원을 보류 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사립고교의 학생 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피제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으며 교사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입학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며 사립학교는 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로 전보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자녀 등의 입학이 예정될 경우 타학교 진학을 권고한다.

또 동일교 재직(재학) 사례가 발견되면 적극 분리 조치하고 권고를 미이행 할 경우 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보류, 학교경영평가 및 학교장 성과 상여금 실적평가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북구, 상반기 음식강좌 수강생 수료작품 전시회 개최

북구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음식 강좌 수강생 수료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수강생들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배우고 익힌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강좌 수료를 기념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우수한 남도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음식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남도전통음식 5개 과정과 광주대표음식 2개 과정을 개설해 수료생 77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강생과 강사 등 80여 명이 참여해 고추김치, 오색꽃송편, 애호박찌개 등 남도전통음식 90여 점과 육전, 오리탕, 떡갈비, 무등산비빔밥 등 광주대표음식 40여 점을 직접 만들어 선보인다.

특히 광주전남한지공예연구회의 지승 그릇 작품 특별초대전 연계 전시로 우리 전통 식기류를 이용한 상차림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매년 음식 강좌를 개설해 남도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과 기획 전시를 통해 남도의 맛, 멋을 널리 알리 나가겠다"고 말했다.